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9강, 마가복음 배경 및 주제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저는 신약의 역사와 문학, 강의 9, 마가복음: 배경과 주제를 발표하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좋아, 시작해 보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두 번째 복음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인 두 번째 복음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atthew를 통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신약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여러 번 속도를 늦추고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위에서부터 관점을 갖고 문서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살펴보게 될 문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이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제시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발표 내용 중 첫 번째로 다음 주가 5주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경 자료와 복음서에 대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찾아보실 수 있고, 아니면 월요일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더 나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이나 다음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1번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정확히 무슨 요일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추가 신용 검토 세션 슬래시 토론 세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수업에서 추가 학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는 추가 학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4번의 시험과 동시에 4번의 복습 토론 세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ASC 학업 지원 센터에 있는 여러분과 관련이 있다면 복습 세션을 위한 다른 학습 세션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count, 그것들은 이 클래스와 별개입니다.

이는 추가 크레딧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학점을 계산하는 유일한 세션은 제가 지정할 4개의 세션입니다. 이에 대해 월요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중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 학점 검토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시험 검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는 수업 자료나 신약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시험 복습 세션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중 4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에 대해 추가 크레딧을 받게 되므로 하나만 얻으면 그에 대한 추가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서는 추가 학점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학기 말에 최종 성적이 나올 테니 월요일에도 더 자세히 공지할 테니 다음 주에 추가 학점 검토 세션이 있을 테니 더 많은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주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활력을 되찾고 동시에 독서와 해야 할 일을 처리할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마가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마도 1세기의 상황에서 듣고 읽고 이해했을 것 같은 방식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21세기와의 격차를 메울 수 있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리뷰입니다. 우리는 방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 뚜렷하게 묘사한 부분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만약 교회가 예수에 관한 하나의 거대한 복음을 갖고 네 가지 복음서를 모두 결합하여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했다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교회는 매우 분리되고 서로 다른 네 가지 복음서를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서 모두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해 주는 고유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묘사한 예수를 볼 때, 마태가 예수를 묘사한 방식에서 어떤 점이 독특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시험이나 그런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마태가 예수를 소개하는 방식에서 독특한 점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무엇을 강조한 것 같습니까? 그는 예수를 무엇 또는 누구로 묘사했습니까? 교사로서. 다섯 가지 담화 블록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묘사하고 싶어했습니다.

또 뭐야? 아주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그러나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메시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사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른 건 없나요? 마태는 예수를 또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새로운 모세로서. 이와 같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였듯이,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 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보다 더 큰 새 모세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제목이나 특징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교사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며,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새 모세이십니다.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약 전체의 정점이십니다.

신약의 모든 이야기, 주제, 모티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과 성취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에

있는 분으로 묘사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릴 때 특히 강조한 주제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마가복음의 주요 메시지와 목적, 마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는 것 외에도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와 마태가 예수를 대하는 방식에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마가는 마태복음에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수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두 번째 복음서, 즉 두 번째 복음서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저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글쎄, 당신은 그것이 오히려 쉽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네 복음서에 대한 저자의 귀속이 실제로 후기 교회와 함께 왔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가가 원래 복음서를 썼을 때 그는 마가복음을 따라 복음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서두에는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후기 교회에 의해 거기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을 만한 전통과 믿을 만한 이해와 표시가 무엇인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주요 원천, 또는 우리가 이해하는 주요 원천 중 하나는 파피아스라는 개인의 진술입니다.

신약성경이 형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초기에 살았던 개인인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의 해석자였으며 따라서 마가복음은 어느 정도 베드로의 설교와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베드로의 동료였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의 일부 편지에서도 언급되었는데, 분명히 바울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베드로의 동료였으며 아마도 베드로와 같은 통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요약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왜 기록되었는가?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본 후 끝까지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마가복음의 목적을 이미 이해했다면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교부들과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부들은 서기 2세기부터 대략 4세기까지 살았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그로부터 200~300년 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기록. 그러나 많은 교부들은 마가복음, 즉 마가복음을 로마, 로마라는 도시와 연관시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마가는 아마도 1세기의 교회들에게 연설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도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 크기의 도시에는 더 작은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모이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아마도 로마 시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룹, 교회, 가정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로를 기억하신다면,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거의 같은 시기에 네로가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잔인하게 대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도시에서 다소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아마도 로마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네로 치하에서 실제로 박해를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설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마가는 로마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나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글을 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하려는 것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다름 아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매우 목가적입니다.

즉, 마크는 단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경우를 대비해 말입니다. 마가는 로마라는 도시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신앙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그것은 고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독자들은 그 이하의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이제 내 컴퓨터가 정지되었습니다.

마크가 구성되는 방식은 메모에서 알 수 있듯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13구절은 일종의 서론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주인공을 소개 하고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나머지 부분, 즉 14절부터 8장, 30절까지, 마가복음의 해당 부분 전체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들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특징짓는 한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 성서학과 후보자의 강의에 참석했는데, 그는 마가 복음에 대한 고대 그림과 초상화의 슬라이드를 여러 장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거의 항상 동물인 사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초창기에는 종종 네 가지 복음서가 서로 다른 동물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한은 독수리였고 마가는 사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으로 묘사되는 마가복음의 처음 여덟 장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승리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제가 강의했던 이 강연에서 사자가 마가복음과 자주 연관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8장 31절부터 복음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8장 31절부터 복음의 끝까지 강조점은 예수님의 고난과 궁극적인 죽음입니다. 이제 이 개요에서 독특하고 흥미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노트에 있는 복음의 구분만 보면 어떤 점이 흥미롭나요? Mark의 구성 방식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띄나요? 중간 두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의 길이는 거의 같습니다.

좋아요. 서론을 제외하면 두 가지 주요 부분, 즉 예수님의 승리하신 사역과 나머지 부분의 길이는 동일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약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학자는 마가복음이 기본적으로 서문이 긴 수난 이야기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거의 절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8장 31절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고난과 그의 고난에 대한 예언, 그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담겨 있으며,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후반부에서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거의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적에 대해 우리가 말한 것을 고려하면 Mark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복음서 작가들이 단순히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것들이 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목적을 고려할 때, 마가복음의 절반을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난과 죽음에 바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로마의 손에 힘겹게 싸우고 아마도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마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일부이자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의 두 부분은 모두 필요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승리가 고난을 통해 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승리하겠지만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절반을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난과 죽음에 바쳐 복음을 구성한 방식에서도 그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마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유일한 주제나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핵심은 마가가 예수를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고 시작하는 인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얻는 곳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 전체에 걸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 구원과 구원을 출애굽기의 옛 출애굽과 같은 새로운 출애굽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 아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외국의 속박과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미래에 또 다른 새롭고 더 큰 출애굽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가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새로운 탈출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새로운 출애굽과 구원과 구출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마크, 우리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제시하고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출했지만 마가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고 새 창조를 가져오시며 그들의 구원과 구원을 가져오실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적 기대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고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꼭 알아야 할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중 하나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인지라 그래서 핵심 구절이라고 부르고 반드시 핵심 구절은 아니지만 마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제시하고 싶은지 포착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의 예수에 대한 기본 견해를 요약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장의 고난 부분, 10장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0장과 45절에서 마가는 인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이 구절은 다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새로운 출애굽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53장의 고통 받는 종의 모티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 본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양을 좋아하는 것은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할 이 고난받는 종의 상황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장 4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가의 주요 강조점 중 적어도 하나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종이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 오시는 분입니다. 이는 로마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고통받고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마가의 목적을 우리가 본 것과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러 오시는 이사야서의 고통받는 종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가 묘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핵심 구절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튜에서 그랬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 이사야서의 새 출애굽, 즉 예수님의 고난 외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죽음, 그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되지 않거나 같은 정도로 강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를 교사로 소개합니다.

그분은 구약과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그를 다윗의 자손,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로 제시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주제와 함께 마가복음의 절반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으로 묘사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바치기 때문에 그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관해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은 예수의 인성과 신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강조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를 신성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 묘사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해 고통받는 인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가의 목표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리의 길, 즉 승리의 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의 메시지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통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으로 고통받고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를 그의 인성과 신성 사이의 균형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 이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복음의 아주 초기 부분에 있습니다. 2장 5절. 2장 5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초기에 행하신 기적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어느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곳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자, 앓은뱅이가 있는데 그를 침상 위에 업고 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아래로 내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곧 중풍병자의 아들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중 일부... 우리가 이야기한 서기관을 기억하십니까? 전문가들은 율법인 구약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묻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글썄요, 그 부분은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느님께만 속한 특권을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하나님처럼 오직 죄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의 신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인성과 신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마가가 로마 도시에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고통받고 애쓰는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제가 강조해야 할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마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가 하고 있는 주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는 또한 1세기 세계에서 흔히 신성으로 알려졌던 이 아이디어에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

그것은 예수를 일종의 초자연적 기적의 일꾼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가는 예수가 단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사람, 어떤 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 점을 누그러뜨리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는 인간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강조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마가복음이 종종 예수를 인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가 그 말을 무슨 뜻으로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복음서를 통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범위를 넓혀서 모든 복음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여러 곳에서 예수를 인자로 언급하거나 예수가 자신을 인자로 부르도록 합니다. 남성.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일에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연관시키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신성, 즉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는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서 있습니다. 인자(Son of Man)는 예수의 인성을 가리킨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습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그 점을 나타내는 몇 곡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자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사람의 아들(Son of Man)이라는 칭호는 대부분 구약성서 다니엘서, 특히 다니엘 7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는 우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네 짐승, 즉 흉악하게 생긴 네 짐승의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가 본 것은 이 네 짐승을 본 후에 또 다른 것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보좌들이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분명히 하나님이 그 보좌를 취하시니라.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카락과 머리는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는 불이더라. 그의 존재 등에서 불의 흐름이 흘러나왔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책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짐승 중 하나가 발하는 큰 뿔의 소리 때문에 내가 지켜보다가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지라.

그리고 그는 고대인에게 와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권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그의 왕권은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처럼 들리나요? 하늘 구름과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타고 오시는 이 인자.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에 올라가서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에게 단순한 인간처럼 들리나요? 나는 인자가 예수님의 인성만큼이나 그분의 신성에 대한 칭호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그 말을 바꾸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아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높으신 하늘의 존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가복음에서 그는 고통받는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어, 문구였고, 인자는 예수님의 목적에 아주 잘 들어맞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실 이 사람의 아들, 즉 다니엘 7장에서 영원한 왕국을 받을 신성한 하늘 존재라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을 뜻하고 인자가 인성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의 인자(Son of Man)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칭호와 같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는 영원한 나라를 받을 하늘의 존재를 가리킨다.

그것은 확실히 그의 인간성에 대한 칭호 그 이상입니다. 괜찮은. 마가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 중 첫 번째는 예수의 인성과 신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은 고통받고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려는 마가의 목적에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마가복음의 또 다른 흥미로운 강조점은 다시 마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확실히 강조되는 것인데, 흔히 메시아적 비밀 또는 비밀 메시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 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 말은, 그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전도 전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비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소식을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며, 이 소식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께서는 왜 자신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 중 일부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완전한 메시아 되심은 그의 메시아 되심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줄

그의 부활 이후까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는 그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메시아로서의 통치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신 말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사와 정치적 역사의 일부로 돌아가면, 메시아에 대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와서 로마인들을 멸절시킬 메시아일 것입니다.

여기 철장을 들고 다스리실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이사야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아들이 나셨고,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자기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스릴 메시아가 있습니다. 즉, 그가 로마인들을 전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왕국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시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먼저 고난을 받고 죽으러 오셨습시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신 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아 자격은 부활 이후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메시아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그들의 통치에서 몰아낼 구원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이유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오해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 가장 먼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것입니다. 이미 기억나지만 아직은 기억나지 않나요? 아직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와서 그의 왕국을 다스리고 세우며 그의 적들을 물리칠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러 오셨습시다. 마가복음의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제자와 제자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시키실 추종자 그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를 비교해 보면 마가는 제자들을 좀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즉,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묘사됩니다.

그들은 둔하고, 오해하고, 실패하고, 믿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 반대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때때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둘을 비교할 때 마태가 그들을 더 나은 빛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마가가 예를 들어 마태보다 덜 빛으로 묘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마크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마가는 제자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함, 깨닫지 못함, 연약함, 믿음이 없음을 강조했을까요? 마크가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마크가 글을 쓰는 목적, 이유, 배경, 마크가 누구에게 글을 쓰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마가가 제자들을 좀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응? 확신하는. 물론이죠. 만약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것은 확실히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들이 믿음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을 격려하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마가의 묘사, 심지어 제자들의 묘사조차도 마가의 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좋은 소식이나 복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번역본에 따라 복음의 시작 또는 좋은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실제로 자신의 책을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은 반드시 문학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첫 번째 복음서 또는 네 복음서 중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그의 책을 좋은 소식 또는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네 복음서입니다.

더욱이 마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한 형태인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마태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번이나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누가는 한두 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그 단어를 일곱 번이나 말했는데, 이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단어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취하여 그것에 대해 다소 기술적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메시지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생과 죄 용서를 받게 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그 용어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그것을 어디서 얻었나요? 다시 말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이 신약성서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역사적 환경에 대한 우리의 조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처럼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작가들, 심지어 사상과 지향이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작가들조차도 로마 통치와 헬라어, 헬라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신약성서의 저자가 그리스-로마 세계와 독자 모두에게 실제로 접착점을 갖고 유대 세계와 유대 독자들에게도 호소력을 발휘할 용어를 자주 사용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마가가 붙인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단지 마가나 바울이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기독교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이미 구약에 나오는데, 선지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것을 추측하셨나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또는 이사야라고 말합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스코틀랜드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이사야를 그렇게 발음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옳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우리가 이미 그가 새로운 출애굽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출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하고 있는 일은 복음이나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새로운 용어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사야의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성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용어입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소식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마태가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취이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은 만물을 다스리시며, 새 창조요, 그의 백성과의 새 언약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전한 그 좋은 소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이 복음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사야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이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과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성서 저자들이 유대인 세계와 문학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 세계 등 여러 세계에서 공명하는 어휘를 자주 사용한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좋은 소식이나 복음이라는 단어도 황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의 탄생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좋은 소식이나 복음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아니면 황제가 한 일을 둘러싼 다른 사건이나 황제와 관련된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거나 복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 만일 이들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현재의 참으로 좋은 소식인 복음이 가이사와 관련이 없다는 다소 전복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좋은 소식의 중심은 카이사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실 일과 행하신 일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에 대한 그 단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의 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두 가지 다른 배경, 즉 선지자 이사야의 유대인과 선지자 이사야의 배경에 공감한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로마 세계,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 또는 황제와 관련된 것. Mark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 전에 Mark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Mark가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마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그의 복음을 하나로 묶었는지, 그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특히 승리와 고난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강조한 것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그림을 얻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어떤 번역본이 있든 사실상 어떤 번역본이 있든 건너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번역이 있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명백해서 마크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자마자 직면하게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당신이 성경을 갖고 있고 마가복음 16장의 맨 끝 부분을 펼쳐 보면, 거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몇 구절이 성경에서 괄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에는 그 괄호 아래에 각주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일어나사 귀신을 쫓아내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 그 여자가 나가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애통하고 울고 있을 때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들이 그가 살아 있고 자기에게 보였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후 두 사람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예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끝이 납니다. 이에 주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어디에서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그에 따른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끝이다. 그러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는 거의 모든 영어 번역이 괄호 안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작은 각주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오래된 사본 중 일부에는 이 결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크는 어디에서 끝났나요? 마가는 절로 끝났나... 즉, 이 부분을 괄호 안에 빼면 마가는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을 언급하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가는 여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 안치되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여인들이 무덤에 간다고 하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에 일렸으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서 나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이야기의 끝.

자, 그것이 복음을 끝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문제는 괄호 안에 있는 이 결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성경에는 일종의 괄호나 괄호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어딘가에 다음과 같은 각주가 있습니다. 이 결말은 가장 오래된 일부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크는 어디에서 끝났나요? 8절에서 끝났나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끝내는 다소 이상한 방법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은, 그것이 복음을 끝내는 방법인가? 아니면

마가가 9절부터 20절까지 썼습니까? 그게 맞는 결말인가요? 내 말은, 우리는 이것으로 결말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폐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게 해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마태복음의 대명령처럼 복음이 퍼져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결말이 바로 그렇게 생각한 선의의 서기관에 의해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8절로 끝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결론짓는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여성들에게 패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고, 예수님의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끝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마도 선의의 서기관이 마가복음이 복사되어 후대에 전해지는 것처럼 선의의 서기관은 아마도 마가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끝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9장부터 20장까지 썼는데, 그 내용은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메시지가 전파되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글쎄, 그것은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마친 방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끝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Mark가 결론을 썼지만 개가 그것을 먹었든, 누군가가 그것을 찢었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 어딘가에서 사라졌다고 제안했습니다. Mark의 엔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결말이 있었는데 8절 이후에 없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복음이 분명히 8절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가 왜 그의 복음을 그렇게 끝낼 수 있었을까? 왜 매튜처럼 끝내지 않는 걸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는 누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언급합니다.

마크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 Mark는 실패로 끝납니다. 마크는 이 여성들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끝을 맺습니다.

마크가 왜 그걸 끝내겠습니까? 마가는 예수가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크가 피터와 연관되어 있고 피터의 통역사였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Mark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끝낸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분은 이 여자들의 실패로 갑자기 끝나시는가, 그들이 여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왜 그분의 추종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여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시는가? 아무 말이나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끝. 아마도 그는 글쓰기에 지쳐서 거기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왜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다시 한번 마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크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적합할까요? 예 바로 그 거예요.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쳐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낀다면 이는 다시 한번 그의 독자들에게 연설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사건들에서도 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실패했고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Mark가 다루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를 격려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단지 실패만이 아니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6절과 7절로 돌아가면 여자들이 무덤에 다가갈 때 그들은 무덤 속에서 이 찬란하고 빛나는 천사 같은 인물을 발견하고 그 인물은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이 흥미롭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그는 자랐습니다. 그는 여기 없다.

보세요, 그가 누웠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하라. 그가 네게 말한 대로 거기서 그를 만나리라.

그래서 흥미롭게도 여전히 예수님의 임재와 약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마가는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약속과 임재의 균형을 맞추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승리할 것이며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마치 복음서에서는 아직도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패로 끝난다. 아마도 이것이 다시 마가복음 독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실패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자신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로마에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마가는 부활 당시에 제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지만, 동시에 그의 임재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좋은.

마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응.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네가 옳아. 여러분의 성경 중 일부는 한두 절로만 구성된 더 짧은 결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것.

마가복음의 일부 사본에는 긴 사본이 없습니다. 더 짧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아마도 마가에게 올바른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마가가 글을 쓰는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8절에서 끝났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약의 역사와 문학, 강의 9, 마가복음: 배경과 주제를 발표하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